



특집

발포스티렌포장용기업계



최 주 섭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이사

국내외 경기 하강 추세로 인해 유화제품에 대한 수요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발포스티렌 제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즉 지구 온난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국가별 이행 문제가 침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약대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주택, 빌딩의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판의 절대적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제품에 대한 환경성 평가 기준을 전과정평가규격(ISO14041)을 근거로 하게됨에 따라 원료 획득,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환경오염의 부하, 지구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사용, 생태계의 보전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인 종이류 포장재에 비하여 결코 환경친화성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비교평가 결과는 포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발포스티렌 완충포장재의 수요 증기를 예상할 수 있다. 수산물 상자에 있어서는 시장에 미치는 특별한 외부 영향 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상자의 경우 소포장화 추세가 발포스티렌 포장재의 수요 감소 요인이나 농산물의 콜드체인화에 따라 보온성과 신선도 유지가 좋은 발포스티렌 상자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용기면 등 식품포장용기로 사용된 스티로폼(PSP)용기의 경우도 금년 10월 31일 일본 환경청의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 문제 검토회에서 스티렌다이머와 트라이머의 안전성이 인정되어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목록 67종에서 삭제키로 되어 있어 그간의 컵라면 용기의 두려움이 가셔질 것이다. 한편 발포스티렌 포장용기의 재활용 실적은 그간 최종 재활용제품의 국내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00년도 재활용 실적이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재활용 부진으로 인한 사용억제압력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장용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포장 쓰레기 문제는 정부,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포장용기를 이용하는 제품의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포장용기 생산업체의 공동책임으로 포장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개발, 원료로의 이용 확대,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협력 등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특히 원료로의 재활용 증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류는 제철 및 시멘트 공장에서의 화학원료 또는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각 산업체에 주어질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를 달성하고 한편으로는 재자원화에 앞장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폐플라스틱류의 이용을 연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K]